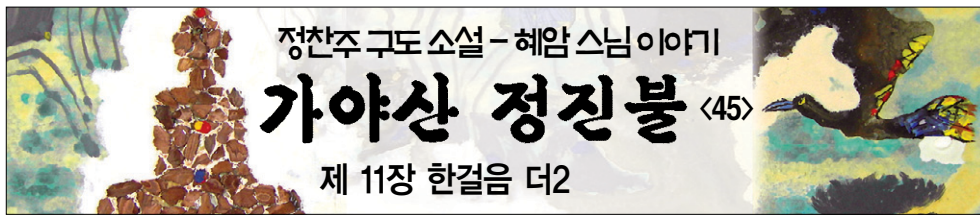


말 적게 하고 음성 낮추며 장난치고 웃는 일 좋아하지 말라



해암은 해인사 선원에서 두 월을 보낸 뒤 중봉암을 떠나려고 했다. 성철 방장스님 밑에서 유나 소임을 맡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정진해 보았으나 대중들의 근기가 들쭉날쭉하여 선원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던 것이다. 선원에 대중이 많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청규를 지키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도 있고, 상기병(上氣病)이 생겨 뒷방으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었다.

해암은 오랜 만에 중봉암을 찾은 광명화보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큰스님, 이걸 왜 주십니까?”
 “나 없더라도 이걸 스승 삼아서 공부하소.”
 “큰스님 글씨 아닙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수표와도 같은 거요.”
 내민 종이에는 해암이 꼭꼭 눌러 쓴 불펜 글씨가 선명했다.
 “큰스님, 중봉암을 떠나실라고 그러니까.”
 “지리산으로 갈거요. 보살은 더 따라오지 말고 이걸 의지해서 공부해요. 오대산 한암스님도 이걸 좌우 명 삼아서 공부했어요.”
 광명화보살은 해암이 어디를 가든 시봉을 계속하고 싶었다.
 “큰스님, 공양주보살 하면서 복덕을 짓겠습니더. 그러니 딱지 마시오. 큰스님께서 가시는 데가 어디라도 따라 가겠습니더.”
 “그거야 보살 마음이지. 어쨌든 나는 혼자 떠나니

말을 적게 하고 음성은 낮추며 장난치고 웃는 일을 좋아하지 말라. 비록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남의 비방은 받지 말라.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니며 집안의 먼지들을 쓸어 내라. 도를 닦는 행에 게으름이 없으며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라.

道心堅固 須要見性 捉着話頭 如交生鐵
 長坐蒲團 莫脇著席 看佛祖語 常自慙愧
 戒體清淨 莫穢身心 威儀寂靜 莫恣暴亂
 小語低聲 莫好戲笑 雖無人信 莫受人誘
 常携?? 掃堂舍塵 道行無? 莫飽飲食

해암이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가고 없다. 해인사 대중 중에는 섭섭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철 방장스님을 보좌하여 해인총림을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랬다. 그러나 해암은 어느 자리에서나 화사는 것이 성철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상무주암은 지리산에 자리하고 있을 뿐 해인사에 소속된 암자였다. 그러니 해암은 해인사를 떠나지 않은 셈이었다.
 상무주암에 도착한 해암은 바로 삼과 곡괭이를 들었다. 지난해 폭우로 끊어진 산길을 닦았다. 틈틈이 딸 나무도 지게로 날랐다. 산길을 닦고 지게질하는 노

“시님, 저는 마실에서 조그만 초가밖에 지어보지 않았습니더. 그러니 다른 목수를 찾아 보시오.”
 “소문을 듣고 왔소. 직간목수는 함양 마천에도 많소. 큰 절을 짓는 것도 아니니 인연을 맺어 봅시다.”
 “큰절이 아닙니까?”
 “그렇소. 손바닥 만한 암자요.”
 정 목수는 작은 암자라는 말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시님, 암자 이름이 뭐니까?”
 “문수암이요.”
 “대들보나 기둥은 단단한 지리산 소나무를 최고로 칩니더.”
 “깎질까지 다 벗겨놓고 그늘에 말려 놓았소. 지붕으로 쓸 함석만 마천에서 지게로 올리면 되요.”
 그제야 정 목수는 해암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까래를 치목했다. 해암의 편지를 받고 은 원각도 자신 보다 서너 살 많은 영산과 함께 일꾼들의 새참과 밥을 지게로 저 날랐다. 그런데 영산은 지게질만 하는 생활이 힘들었는지 상무주암을 떠나려고 했다.
 “아무래도 선방으로 가야겠소.”
 “문수암을 보고 동안거 때 가지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해암 스님을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소.”
 “스님께 말씀은 드렸습니까?”
 “어제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더.”
 “뉘라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원각스님은 이곳에서 계속 머물 생각입니까?”
 “저는 우리 스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뿐입니다. 우리 스님이 가시는 길을 밟고 따를 뿐이니

런 마음이었으므로 한 가닥의 요령이나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생각도 없었고, 무엇이 관한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자신에게 길을 열어 준 고마운 분이 시키는 일이니 무심코 할 뿐이었다. 그 사이 암자 터에 기둥과 들보가 맞추어 세워지고 상량식 때는 단에 떡과 과일을 올려졌다. 해암은 묵묵히 치며 <반야심경>을 외었다. 문수암 불사는 정 목수가 약속한 대로 첫눈이 내리기 전에 회향되었다. 그제야 해암이 원각을 불러 말했다.
 “너는 해인사 선방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문수암에서 겨울을 나 처사와 함께 날 것이다.”
 원각은 새 암자인 문수암에서 정진하고 싶었지만 해암이 지시하는 대로 즉시 문수암을 내려왔다. 나 처사는 해암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어 문수암을 찾았은 불자였다. 은사를 두고 해인



그림 · 최문정

지리산 상무주암 옆 토굴터에 문수암 불사 시작

낮에 일하는 것으로 정진, 밤에도 참선수행

새 암자에서 나 처사와 정진... 새 봄에 떠나

그리 아시오.”
 해암은 광명화보살에게 종이 한 장을 남기고 해인사를 떠났다. 지리산에는 해암이 정진할 빈 암자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그 빈 암자가 바로 고려 때 보조국사가 깨달음을 얻었던 상무주암이었다.
 할 수 없이 광명화보살은 해암이 준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산으로 돌아갔다. 종이에는 중국의 천목중봉(天目中峰)선사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수행지침의 글이 쓰여 있었다. 중봉선사는 <선요>를 집필한 고봉원묘(高峰原妙)선사의 제자이기도 했다.

도 닦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 모듬지기 반드시 견성할지이다. 화두를 꼭 붙들고 생활을 씹듯이 하라. 좌복 위에 길이 앉아 열구리를 땅에 대지 말라. 불초의 말씀을 잘 읽어서 항상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계의 몸을 청정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행동거지는 조용히 하여 욕정과 사나움과 이지러움이 없어야 한다.

동이 해암에게는 낮 동안의 정진이였다. 마음 닦는 공부의 밤에만 해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동안 해암은 상무주암으로부터 1km쯤 떨어진 산중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했다. 동굴 주위를 살펴보니 옛 수행자가 살았던 기운이 느껴졌다. 해암은 환희심을 내고 암자를 하나 짓기로 작심했다. 기둥과 서까래 용도의 굵은 재목들은 상무주암 주변의 산자락에 흔했다.
 부지런한 영산(靈山)이 흰 흙은 처사와 번갈아가며 벤 소나무들을 지게로 날랐다. 해암은 낮을 갈며 하루 종일 소나무깎질을 베풀었다. 한편으로는 암자 터의 잡목들을 베고 계곡에서 주춧돌과 반반한 구들장 돌을 찾아 모았다. 잔일을 돕는 일손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해암은 상좌 원각에게 해제하면 상무주암으로 올라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윽고 해암은 하동으로 가 목수를 만났다. 상무주암을 가끔 올라오는 함양 사람에게 하동에 산다는 정목수를 소개받았던 것이다.
 “암자를 하나 지어주시요.”

“시님, 문수암 상량신을 잘 모시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알마나 걸리겠소.”
 “상량은 추워지기 전에 올라가야 할겁니더. 추울 때 흠뻑을 바르면 봄에 흐물흐물 부서지고 맙니더.”
 정 목수는 품삯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 해암은 그의 약속을 받고는 돌아왔다. 정목수는 도솔 일꾼들은 이미 마천에서 구해놓은 터였다. 시멘트와 모래 등은 일꾼들이 마천에서 지게로 저 날라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수암 불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마천 마을사람 중에 누군가가 상무주암 주변의 소나무를 베었다고 해암을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해암은 난데없이 거창지검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산림법과 국립공원법은 엄중하여 누구라도 지리산의 소나무를 단 한 그루라도 무단으로 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해암은 한 신도의 도움으로 벌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다.
 해암은 상무주암으로 돌아와 다시 삼을 들었다. 정목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과 함께 기둥과 서

다.”
 해암은 고된 노동으로 밤이 되면 꿈꿨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원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방에 군불을 더 들고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스님, 영산 스님을 왜 붙잡지 않았습니까?”
 “난 영산을 부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붙잡겠느냐.”
 해암의 말은 사실이였다. 영산이 어느 날 상무주암에 왔다가 갈 때가 되자 흰 구름처럼 눈앞에서 사라진 것뿐이었다.
 “지리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거라. 지금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공부다.”
 원각은 영산이 한 일까지 끝으로 하다가 보니 더욱 고되고 힘들었다. 날마다 일꾼들의 밥과 새참을 지게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뚫다. 일손이 바쁠 때는 마천에서 올라온 모래와 시멘트까지도 지게로 저 날랐다.
 어깨에 멍이 들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지만 해암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은사스님이 시키는 일이니 묵묵히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

사로 돌아가는 원각의 발걸음은 그래도 무겁지 않았다. 나 처사가 동안거 동안 해암을 잘 시봉할 거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안거가 해제되자마자 문수암으로 올라간 원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몸골은 3개월 전과 전혀 판판이었다. 머리는 봉두난발에다 수염은 산적처럼 길었고, 옷은 누더기가 다 되어 납투했다.
 “지리산 너가 고생한 공덕으로 문수암에서 겨울을 잘 보냈다.”
 “저는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다하셨습니다. 거창으로 가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더.”
 그런데 어느 날 해암은 문수암을 떠나려고 했다. 문수암에서 정진하고 싶다는 한 스님이 나타나자 미련 없이 넘겨주려고 했다. 새 암자에 대한 집착이 털끝만 큼도 없기 때문이었다. 해암은 문수암에서 겨울 한 철을 훌훌하게 옹망정진한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단 한 철 겨울을 나기 위해 9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한 셈이었다. 해암은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 전강 회상으로 떠났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총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시므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 정진안내
- 철야 옹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함동천도재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워 내드려야
 영기가 내려와도 우지를 막지 마라.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도이여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갈게 되네.
 - 해암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감원 박산 원각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